

80주년 광복절 전남도민과 함께 의미 되새긴다

道, 경축식·전시·공연 등 프로그램 다채
향일독립유산 道지정문화유산 지정 추진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선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0시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도민과 함께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을 주제로 열리는 경축식은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 회원, 기관·단체장,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참가를 신청한 도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고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6개 예술단체가 협업한 ‘잊지 말자, 오늘’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은 근현대사의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전남인의 민족정신과 민중의 저력을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광양 매천 황현 생가와 묘소 등 도내 항일독립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도립국악단의 기획공연 ‘백범 김구’, 전남도청 갤러리에서의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도민 대상 역사문화체험과정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축식, 명사포럼, 기획공연, 전시 행사 등 뜻깊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함께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범도민적 나라 사랑 분위기 조성에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광복 80주년 분위기 사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에는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장을, 이달 1일에는 임용한 한국역사고



광복 80주년 특별전 광복 80주년을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연구소장을 초청해 명사 포럼을 개최했다. 사전 참여를 신청한 도민과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해 광복 과정에서의 호남의 역할을 조명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도 오는 13-14일 이틀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제를 개최, 강연과 포럼, 토크콘서트 등 청소년과 도민이 함께 전남의 의로운 역사와 독립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디자인비엔날레·KTX·숙박 결합상품 출시

광주시, 전국 대상 10월말까지 운영

광주시가 오는 30일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교통·문화·숙박을 아우르는 결합상품 2종을 출시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결합상품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찾는 관람객들이 KTX 왕복승차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입장권, 광주지역 숙박 할

인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품은 KTX+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KTX+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숙박 할인 혜택 등 2종이다. 관람객은 여행 스타일과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열린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19개 국가 429명의 작가와 8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 관람을 넘어 관람객과의 교감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끄는 전시로 기획됐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결합상품은 10월31일까지 운영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야외활동 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道, 피부 노출 최소화 등 당부

전남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소매 착용을 통한 피부 노출 최소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쯤쯤가무시증 등이 있다. 농작업, 등산, 캠핑,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SFTS는 일명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악화되

면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쯤쯤가무시증은 털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10일 이내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긴다. 항생제 치료로 쉽게 회복되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패혈,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풀밭에 바로 앉지 않고 방석이나 돛자리를 깔아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곧바로 옷을 털고 세탁한 뒤 샤워를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재정기자

광주시립도서관, 15개 독서문화 강좌 운영

내일부터 홈페이지 접수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5개 독서문화 강좌를 마련하고 12일부터 수강 희망자를 모집한다.

무등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사주명리학’, ‘펜 하나로 시작하는 일상 드로잉’, ‘생활영어회화(초급)’, ‘통기타 여행(초급)’ 등 4개 강좌를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내 삶이 시가

되는 창작교실’, ‘스마트폰 정복하기’, ‘시민 한문교실’, ‘양림을 그리다’, ‘갑탄 캘리그래피’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역사 토크 인물이야기’ 등 6개 강좌를 준비했다.

산수도서관은 성인 대상 ‘한국 근현대소설 함께 읽기’, ‘인생문장:고전에서 찾은 삶의 길’, ‘마음을 담은 캘리그래피’, ‘일상여행 어반 드로잉’, ‘교양으로 읽는 서양역사’ 등 5개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2일부터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강좌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변은진기자

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전남개발공사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해 지난해 최우수 등급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평가는 전국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관리와 경영 성과 등 2개 분야 총 20여개 세부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모델 수립 ▲단계별 수익환원을 고려한 ESG경영 실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나주·고흥 국가산단 조성 ▲10년 연속 흑자경영 및 부채비율 28%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통해 공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도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에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남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왜,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가?

1 고령보행자는 접근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때는 차만손 해요.

2 운전자는 느린 보행의 고령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차만손 해요.

3 우리나라는 고령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손 해요.

4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들면 대부분이 멈춰요.

그래서, 느린 보행의 고령자는 차만손 해요.